

+ 조해남 · KBS 기술본부장

열정이 넘치는 한해를 만들어 갑시다



방송기술인 여러분, 지난 2009년 11월 28일에 공영방송 KBS의 기술본부장으로 취임한 조해남입니다. 우선, '방송과 기술'을 통해 전국의 방송기술인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9년 한해는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2010년 한해도 작년과 같이 방송기술을 둘러싼 환경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신개념의 시청자 서비스가 확산되는 기술경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서비스, 정책,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방송기술인들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 방송 서비스의 다양화, 콘텐츠 제작의 효율화, 연구개발의 가속화 등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으며, 방송, 통신, 인터넷 등에서 매체융합시대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컨버전스의 물결이 빠르게 다가올수록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와 방송기술의 역할도 증대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보다 다채널, 난시청, 양방향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기술 분야와 지상파방송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투자비용 부담, 저조한 수신기 보급률, 매우 낮은 직접 수신가구 비율 등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으나 방통융합시대에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방송환경을 진화시키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방송기술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기술인 여러분!

그동안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방송발전을 선도하고 수신료를 내주신 시청자에게 보답하기 위해 고품질 디지털 전환, 방송기술 연구개발, 난시청 해소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확산됨으로서 KBS가 국내 방송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상파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들은 오늘날 국제전시회, 국제표준화단체, 국제학술발표회 등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영방송 KBS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뉴미디어와 방송현안에 대한 새롭고 가치 있는 연구개발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성과확산 노력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3DTV, 지능형방송, 실감방송 등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고도기술 연구개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방송전파가 발사된 이후로 방송의 발전에는 기술이 중심에 있었고, 기술의 발전 없이는 방송의 발전을 논할 수 없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에서 컬러 텔레비전을 거쳐 현재 디지털 텔레비전까지 방송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청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2012년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시청자들은 지금보다 몇 단계 높은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더욱이 현재 KBS에서 추진 중인 한국의 무료 지상파 디지털 TV 플랫폼의 실현은 시청자들에게 무료의 다채널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시청자 복지 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더 깊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보다 사랑받는 방송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같은 기술경쟁의 시대에 방송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시청자들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배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방송기술인들의 안목과 끝없는 열정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노고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며 2010년 경인년 새해, 방송기술인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